

손해보험회사의 이익집중도와 수익성 편차

조영현 연구위원, 최원 수석연구원

요약

- 최근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는데, 감독 관점에서는 이익 규모 외에도 이익 변동과 회사별 이익 편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산업의 이익 변동에는 보험영업 측면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투자영업 측면에서 매도가 능증권 처분 이익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은, 산업 전체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때는 이익집중도 및 수익성 편차가 감소하는 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이익집중도 및 수익성 편차가 증가하는 점임
 - 이익집중도는 산업 전체의 이익 규모가 작았던 시기에 크게 나타났으며, 총자산수익률(ROA) 분포의 편차는 산업 전체 이익이 증가할 때 작아지고 산업 전체 이익이 감소할 때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시기에 중소형사들의 수익성이 대형사에 비해 더욱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사의 손해율 수준 및 변동성이 크고 이익조정 여력이 작기 때문임
- 올해는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구(舊) 회계기준)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이익집중도와 수익성 편차 확대가 예상되므로 금융당국은 중소형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단,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해 올해 당기순이익 규모는 작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 변화와 회사별 이익 편차 간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중소형 손해보험회사가 이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사별 특성에 부합하는 이익 관리 역량 강화 이외에도, 독립적이고 엄격한 가정관리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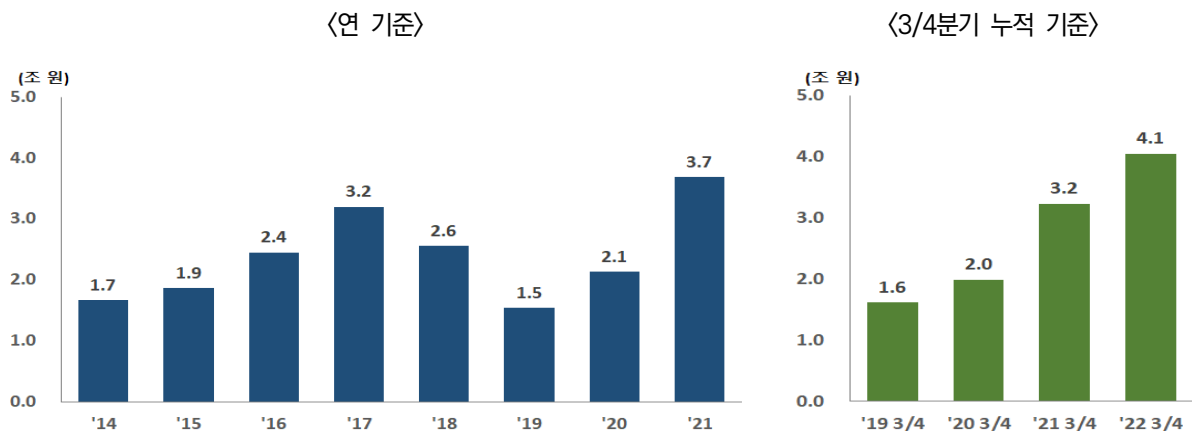


1. 검토 배경

○ 2022년 일반 손해보험회사¹⁾의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목받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20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8년과 2019년 장기손해보험 사업비 확대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감소함
-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반사효과²⁾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2021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22년 3/4분기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이 4.1조 원을 넘어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2022년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일반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



자료: 금융감독원

○ 본고에서는 손해보험산업의 이익 규모 이외에 이익 변동과 회사별 이익 편차를 살펴보고, 건전성 감독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개별 회사의 경우 회사의 자산 및 부채 구조에 따라 산업 전체의 이익 변화와 다르게 이익이 변동할 수 있음
- 세밀한 건전성 감독을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회사별 이익 변동(및 그로 인한 건전성 변화)의 특징이나 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1) 본고에서 지칭하는 '일반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업을 종합적으로 경영하는 국내사 11개 회사임(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분류를 따름)

2)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인 자동차 손해율 개선과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 효과가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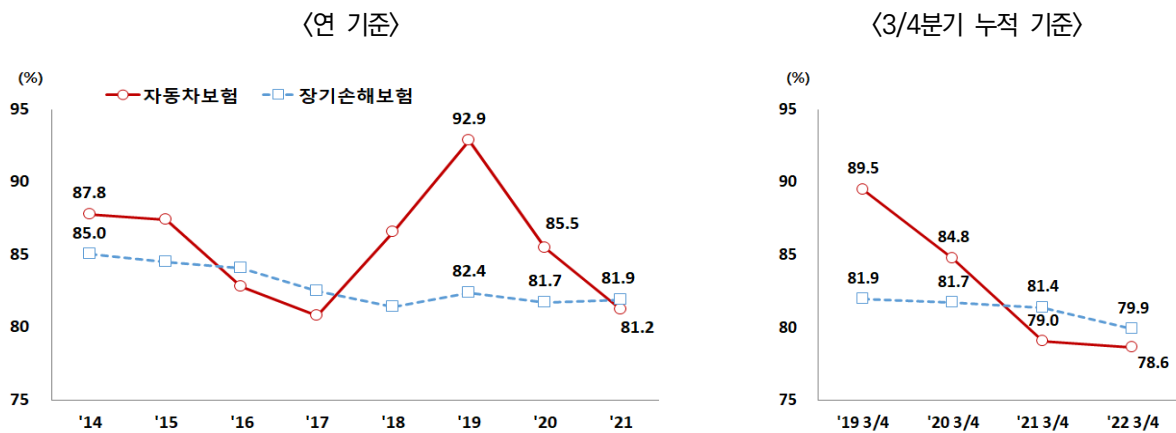


2. 손해보험산업 이익 변동의 특징

○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해보험산업 이익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일반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 규모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간에는 뚜렷한 역관계가 나타남
 -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인상³⁾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및 사업비율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만큼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음

〈그림 2〉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 및 장기손해 경과손해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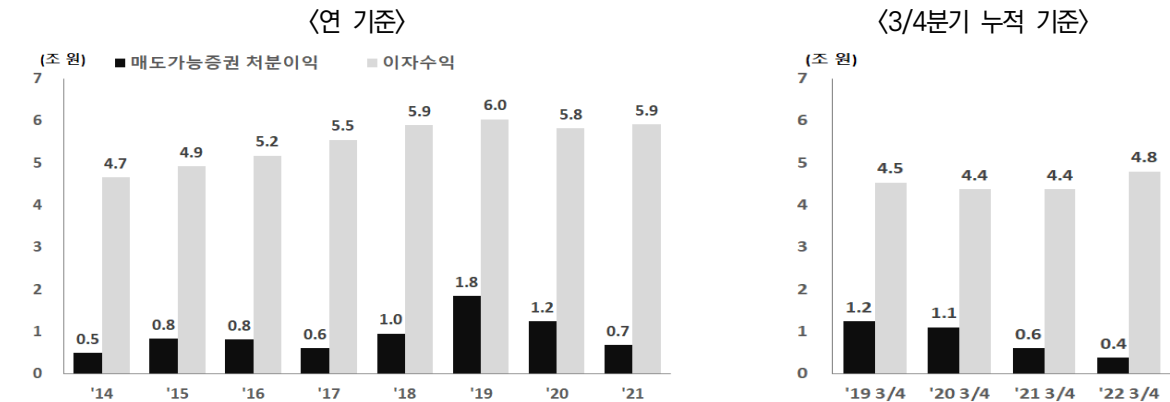
○ 투자영업 측면에서는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이 손해보험산업의 이익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침

-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은 당기순이익과 역관계가 보이는데, 이는 금리하락기에 보험회사가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일부 학술연구는 보험회사가 당기순손실이 보고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선택적으로 처분하고 있음을 보이기도 함⁴⁾
- 투자영업이익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수익의 경우 2014년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의 변동과는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음

3) 2020년 2월, 4월 누적된 자동차보험 적자 개선을 위해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됨

4) 박규서·조석희(2016), 「보험회사의 금융자산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그림 3〉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및 이자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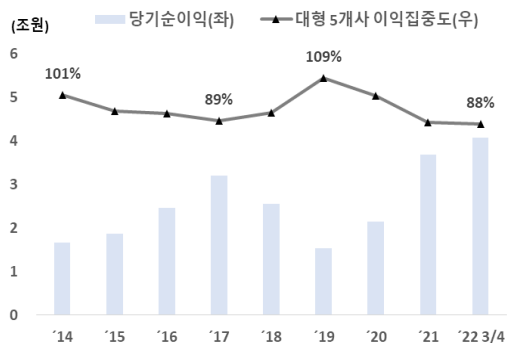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금융감독원



3. 이익집중도 및 수익성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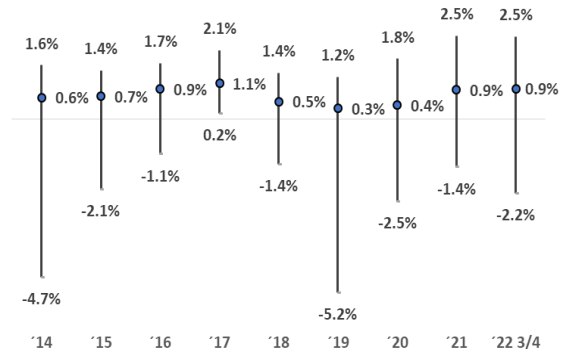
- 이익 변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산업 전체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때는 대형사 이익집중도 및 수익성 편차가 낮아지는 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대형사 이익집중도 및 수익성 편차가 증가하는 점임
- 일반 손해보험회사 11개사 중 대형 5개사⁵⁾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익집중도)은 최근 8년간 산업 전체 이익 규모가 가장 작았던 2019년에 109%⁶⁾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산업 전체 이익 증가에 따라 감소함
 - 일반 손해보험회사 자산 중 대형 5개사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약 79%로 안정적인
- 전체 이익이 증가할 때는 11개사 총자산수익률(ROA) 분포의 편차가 줄어들고, 전체 이익이 감소할 때는 ROA 분포의 편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

〈그림 4〉 당기순이익과 대형사 이익집중도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그림 5〉 ROA 분포



주: 점은 중위값이며, 위·아래 수치는 각각 최댓값, 최솟값임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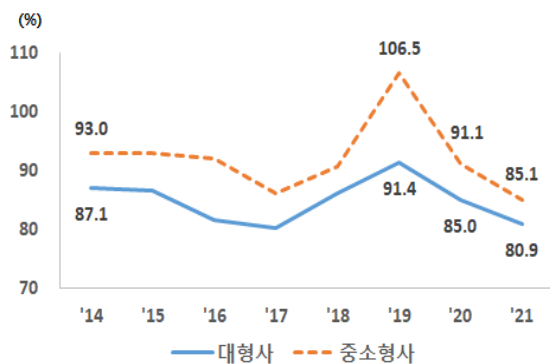
5) 자산 및 이익 기준 상위 5개사는 삼성, 현대, DB, KB, 메리츠임

6) 이익집중도가 100%를 상회하는 것은 당기순손실이 난 회사들이 있기 때문임

○ 이는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시기에 중소형사의 수익성이 대형사에 비해 더욱 악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소형사의 손해율 수준이 높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변동성이 크며, 이익조정 여력이 작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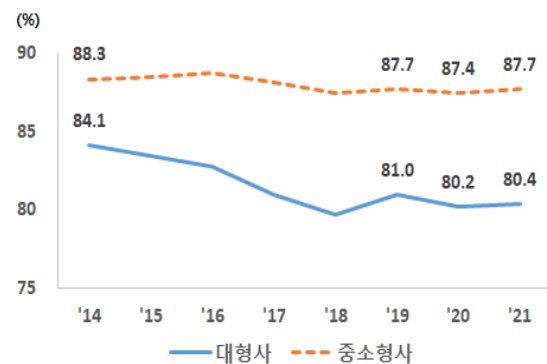
- 중소형사들은 높은 손해율로 수익성이 저조하여 수익성 개선 여지가 낮고 작은 손해율 상승에도 취약한 상태이며, 이익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변동이 큰 것이 특징임
 - 중소형사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높은 수준으로 수익성 개선 여지가 낮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중소형사들은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을 활용한 이익조정 여력도 약한 것으로 보임
 - 산업 전체 이익이 감소한 2018년과 2019년에 대형사는 큰 폭으로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을 증가시켜 수익성 하락을 방어했으나 중소형사는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변화가 적음(그림 9) 참조)

〈그림 6〉 그룹별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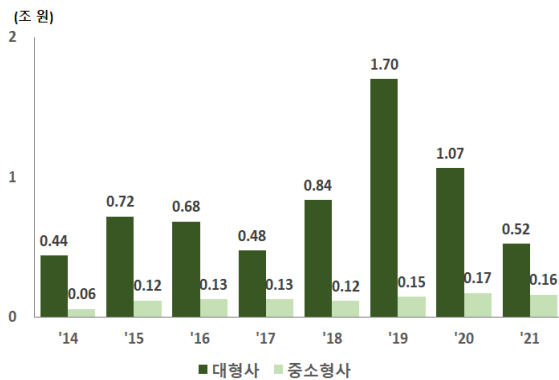
주: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사이며, 중소형사는 대형사를 제외한 국내 일반 손해보험회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 그룹별 장기손해보험 경과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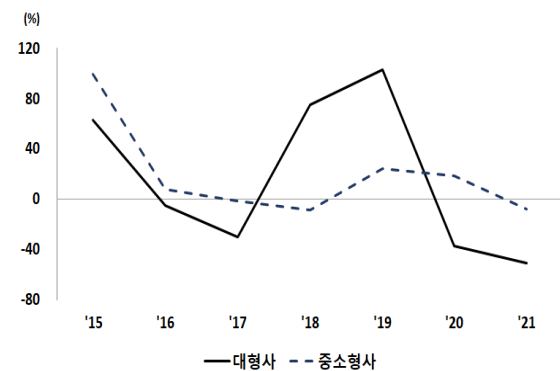
주: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사이며, 중소형사는 대형사를 제외한 국내 일반 손해보험회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 그룹별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규모



주: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사이며, 중소형사는 대형사를 제외한 국내 일반 손해보험회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 그룹별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증가율



주: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사이며, 중소형사는 대형사를 제외한 국내 일반 손해보험회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시사점

- 올해는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구(舊) 회계기준)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대형사 이익집중도 확대 및 수익성 편차 확대가 예상되므로, 금융당국은 중소형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올해는 코로나19 반사이익의 소멸, 자동차보험료 인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자산 부실화 가능성 확대, 경기 둔화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 등과 같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익 관리 여력이 약한 중소형사의 부실 위험이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 높아 자산 부실화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6월 말 RBC 기준 대출채권의 신용위험계수는 대형사의 경우 3.3%, 중소형사의 경우 2.1%임
- 단,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해 올해 당기순이익 규모는 작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 변화와 회사별 이익 편차 간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회계제도 전환 방법에 따라 이익의 원천이 되는 보험계약마진(CSM)의 규모가 달라지며, 이로 인해 경영환경 악화와 무관하게 올해는 이익 규모가 커질 수 있음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회사별 이익 변동은 회계기준보다는 회사의 펀더멘털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익 편차 변화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중소형 손해보험회사가 이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사별 특성에 부합하는 이익 관리 역량 강화 이외에도, 독립적이고 엄격한 가정관리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함
 - 경영환경 악화 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수 있는 중소형사들의 경우, 현재의 손해율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및 공급할 필요가 있음
 - 발생주의 방식의 IFRS17은 이용하는 가정에 따라 CSM(및 이익) 규모가 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정관리를 잘하는 회사가 안정적인 이익을 나타낼 것임
 -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예상과 실제 비용 차이의 확대로 인해 이익이 불안정해질 것임